보성군은 최근 이종찬 전 국정원장(우당 기념관 관장)을 초청, 주민을 비롯한 군의원, 공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강당에서 제354회 보성 자치포럼을 개최했다.

보성, 광복절 기념 자치포럼 개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초청 강연
'광복 77주년 우리의 과제' 주제
한류 열풍·'개방' 중요성 강조

보성군은 최근 이종찬 전 국정원장(우당 기념관 관장)을 초청, 주민을 비롯한 군의원, 공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강당에서 제354회 보성 자치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보성군 자치포럼 주제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과제'로 선정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조선시대의 명문가 이회영 독립운동가의 친손으로 1900년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근간이 됐던 만주 신흥무관학교 설립과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 등 독립운동의 흐름과 광복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5,000년 동안 이어온 문화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역사와 문화가 가진 힘을 활용한 K-팝 등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강조하며 '개방의 중요성'과 함께 보성군만의 문화와 특성도 개방을 통해 세계 무대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광복의 의미를 찾는 강의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보성군민과 직원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성군의 미래가 밝고, 세계 속의 보성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주민 박장주씨(67)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역사를 등한시했었는데, 이렇게 광복절을 기념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대해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나니 국가의 중요함과 선조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됐다"며 "보성의 독립운동 또는 역사를 활용한 시책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포럼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더 다양한 주제와 강사 초빙을 통해 알찬 자치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군민과 공무원들의 지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 경제, 사회, 예술, 직무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 보성 자치포럼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들과 더 많은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보성 자치포럼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종 기자

정기명 여수시장, 동부권 '닥터헬기' 배치 건의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명 여수시장이 최근 영암군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배치를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이다.

정 시장은 "현재 전남의 닥터헬기 계류장이 신안군에 위치하고 있어 여수를 비롯한 동부권은 운항 범위를 벗어난 지역이 많다.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대다수가 해경 헬기와 선박을 통해 이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늘어나는데 비해 해경 헬기는 응급·구호장비가 부족하다보니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어려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 동부지역에 닥터헬기를 도입하면 전남도는 물론, 광주시와 경상남도까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배치 공모사업에 전남 동부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배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중앙정부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곡성,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추석 명절 이후 집행

곡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곡성군은 지급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9월 추석 명절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총 5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곡성군의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제2회 추경 심의 의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곡성군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며 지역화폐인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거주지 요건 충족 여부는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거주불명자와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세대별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거인의 경우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해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세대주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곡성=한정길 기자

구례,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 '철저'

김순호 군수, 적극 군정수행 주문

구례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 준비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철저 등 꼼꼼한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이어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2023년도 보조사업 예산 확보, 시내권 현수막 정비 지속 추진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사전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스타필드 순천' 유치 필요 공감대 형성

노관규 시장-임영록 대표 회동

순천시는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과 스타필드 개발·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가 시장실에서 만났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노관규 시장은 순천시의 잠재력과 남해안 관광벨트를 통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고, 신세계 측도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공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노 시장은 스타필드의 순천 유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고, "순천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면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는 남해안남중권 관광벨트 사업에 화룡점정을 찍는 것이며, 동서화합을 이끄는 '화개장터형 프로젝트'로 남해안 관광 축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영록 대표는 "순천시장의 순천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구도와 남해안 발전을 큰 틀에서 생각하는 철학에 크게 공감한다"며 "오늘 첫 만남을 가졌고 순천의 공식 의견을 들었으니 앞으로 다양한 고민을 순천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예전에는 행정과 정치가 지역 통합을 이뤄냈다면 변화된 시대에서는 기업이 지역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스타필드와 함께 대한민국 중소도시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사)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 추석물품 기탁

구례군과 (사)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함께하는 물품 기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사)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추석 명절에도 45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225상자를 군에 기탁했다.

이원열 구례군지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들과 훈훈한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의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의 돼지고기를 기탁해 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여수 둔덕동, '후원의 손길' 잇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 둔덕동에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남대에서 둔덕동 홀몸노인, 장애인세대 등을 후원하기 위해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전남대는 2014년부터 연탄봉사 및 물품 후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 대순진리회 영월방면에서도 백미 10㎏ 100포를 후원했다. 둔덕동은 후원받은 상품권과 백미를 관내 취약계층에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최재영 둔덕동장은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후원해줘 감사하다"며 "후원품은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굿킵스, 노인일자리 어르신에 마스크 기부

순천시는 최근 ㈜굿킵스(대표 평자방)와 전남동부권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센터장 정채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장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기부한 마스크는 ㈜굿킵스에서 제공받은 마스크 반제품을 전남동부권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내 발달장애인들이 선별 포장작업을 해 사회적 가치를 더했다.

평자방 굿킵스 대표는 "이번 마스크 나눔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자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